

## 국내 컨벤션 산업의 환경분석에 따른 육성 전략

김 종 훈 · 곽 규 환\*

경남정보대학 전임강사  
\*셸브르관광호텔 총지배인

### **A Strategy to Foster the Domestic Convention Industry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Present Condition**

**Jong-Hoon Kim and Kyu-Hwan Kwak\***

*Professor,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Manager, Cherbourg Tourism Hote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omotion for the Korean convent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Korean convention industry. Its fostering plans as follows;

1. Provide educational program such as meeting planners institute (MPI) in the United States produces a range of training program for convention management, together with a certification when a certain level is reached.
2. Construct multiplex-convention center and convention facilities propelling by demand analysis.
3. Strengthen gather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4. Establishment of Korea convention bureau.
5. Strengthen overseas publicity activities through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and activate the induce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rom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6. Increased financial and legal support for convention center developers and convention organizers.
7. The rapid growth of convention industry tourism combined with increasing competition, makes integrated networking an imperative tool for ens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ey words : convention industry, analysis, foster.

#### I. 서 론

한국의 관광산업은 1975년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78년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에 힘입어 호텔 등 관광객 이용시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2000년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얼마 전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사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다가올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 10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외래관광객 800만명의 유치를 목표로 관광업계에 대한 세금, 금융지원, 국제회의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sup>1)</sup>.

그러나 관광계절의 기후적 국한성, 구미지역과의 지역적 원격성, 일본시장에의 편중성, 체재일수의 단기성 및 관광 심벌의 결여, 관광 서비스 수준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외래관광객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래 관광객 수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하면서 관광외화수지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반전시키고 더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각 국 정부는 컨벤션 산업을 21C의 고부가가치 신중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관련법 제정, 경비보조, 세금감면, 컨벤션 도시지정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각종 컨벤션뿐만 아니라 전시박람회, 학술세미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행사, 외국 기업체들의 인센티브 관광 등의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컨벤션 산업 육성의 기회요인으로는 구미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이념을 초월한 실리추구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지역, 조직간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 인권보호, 환경보전 등과 같은 국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의 증가는 컨벤션 산업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sup>3)</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컨벤션 산업은 대형 컨벤션의 부재, 컨벤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대외 신뢰도 저조, 컨벤션 관련업의 수도권 집중, 지방 국제 항공망 부족, 컨벤션 산업 인프라 부족 및 관련업계와의 협조체제 미비, 컨벤션 유치활동 및 지원책 미비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주변 아시아지역 경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컨벤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컨벤션 진흥을 위한 기초 여건의 구축 및 향후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이론의 검토와 각종통계 및 사례연구를 위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국내컨벤션산업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객관성을 위하여 컨벤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자문을 구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컨벤션의 전략적 의의

21세기 첨단서비스 산업으로 불리는 컨벤션은 전 세계에서 연간 9,433건(2000년 기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앞으로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며 컨벤션에 필요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sup>4)</sup>.

컨벤션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비중이 매우 크며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외화획득, 고용창출, 재정수입 증대, 국제수지 개선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컨벤션 참가자는 일반관광객에 비하여 체제일수가 길고 외화소비 수준도 거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외화획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관광객 유치보다 훨씬 유리하다<sup>5)</sup>.

오늘날 세계 주요국은 컨벤션 산업을 환경 친화적,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컨벤션 산업을 관광산업에서 분리하여 독자적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sup>6)</sup>.

한국정부는 2000년 ASEM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서울에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컨벤션산업을 관광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지원책을 펴고 있다<sup>7)</sup>.

우리가 국제적으로 유치코자 하는 컨벤션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에 는 컨벤션을 위시하여 컨퍼런스(conference), 콩그레스(congress), 심포지엄(symposium), 포럼(forum), 워크샵(workshop), 클리닉(clinic), 리트리트(retreat), 당기강좌(institute), 패널(panel), 전시회와 무역전람회(exhibition and trade show)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유치는 위에 언급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사회·문화·정치·관광적 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컨벤션의 유치 및 개최는 질 높은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을 통하여 국제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최지역의 세계화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sup>8)</sup>.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의의 개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종전 구미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아시아지역으로 개최지 선정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는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세계관광기구(WTO)총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 아시아게임”,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PATA제주총회” 등 대형 국제회의와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며, 2007년 “ASTA총회” 등 대형 국제회의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어 활기를 띄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아시아지역의 주요 국제회의의 개최

국으로 부상하고 있다<sup>9)</sup>.

특히 월드컵 개최 이후 우리나라의 전시 컨벤션 산업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한국이 각종 초대형 국제회의의 행사와 전시 박람회의 개최지로 선호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예정된 행사도 한국을 보고 싶어하는 외국업체와 바이어의 추가 신청으로 행사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여 컨벤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김용관<sup>10)</sup>은 경기도 컨벤션 산업의 육성방안에서 컨벤션 사무국 설립의 필요성, 경기도 컨벤션 사무국의 역할, 컨벤션 시설의 성격,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국제 컨벤션의 유치보다 국내 컨벤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우곤<sup>11)</sup>은 국내 컨벤션 산업의 현황 및 경제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컨벤션 산업의 육성대책으로 컨벤션 운영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지방 컨벤션 시티의 지정육성을 제안하고 컨벤션 및 전시산업의 국내 경제파급효과에 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윤주현<sup>12)</sup>은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회의의 유치환경에 대한 육성방안, 전문요원의 육성방안으로 나누어 육성방향을 도출하였고,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 방안으로, 지방도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개발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박창수<sup>13)</sup>는 국제회의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회의산업진흥정책의 목표설정과 대안탐색을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적용해서, 국제회의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대책으로 제도적 대책, 행정적 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국제회의 복합시설지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컨벤션 시티 육성과 관련상품 개발, 국제회의 정보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Ⅲ. 컨벤션 산업의 환경분석

### 1. 세계 관광산업 환경

컨벤션 산업은 중형 서비스 산업으로 회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운송업체 관광업체 등 관광산업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컨벤션 산업 환경분석 이전에 관광산업 환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97년 5월 태국에서 발발하여 아시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1998년 이후 브라질과 러시아에 까지 미친 금융위기가 현재는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에 대한 불

안심리, 소비위축 등으로 2000년대 초까지는 4.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는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10억 6백만 명의 국제 관광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표 1, 2)

〈표 1〉 관광객 수요 예측

연 도	관광객(백만)	증가율(%)
1990	458	6.21
1991	463	1.09
1992	503	8.63
1993	513	1.99
1994	528	2.92
1995	566	7.19
1996	597	5.48
1997	611	2.35
1998	635	2.50
1999	645	3.20
2000	668	3.57
2010	1,006	*4.20
2020	1,561	*4.50

\* 4.20%(2000~2010) 및 4.50% (2011~2020)은 연평균 증가율임.

\* 자료 : WTO(2000), Tourism 2020 Vision, pp.214~216.

〈표 2〉 세계 관광의 주요 전망

연 도	주 요 전 망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및 중/동부유럽 인바운드 관광객 각각 1억명 돌파</li> <li>· 북유럽 인바운드 관광객, 사상 최초로 5천만명 상회</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관광객 10억명 돌파</li> <li>· 남아시아 인바운드 관광객 1천만명 도달(11년만에 배증)</li> <li>·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주지역을 제치고 세계2위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1위는 유럽)</li> <li>· 서유럽 인바운드 관광객 1억 5천만명 도달</li> <li>· 중동지역 아웃바운드 송출규모, 사상 최초로 2천만명 육박</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관광객수 15억명 돌파</li> <li>· 미국 인바운드 관광객 1억명 육박 (미국 방문 상위 7개국 관광객이 총 5천만명을 초과)</li> <li>· 남아프리카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10년만에 2배 증가</li> <li>·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4천만명을 기록 (2002년도의 4배)</li> </ul>

\*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0), 21세기 관광대국실현을 위한 전략경영기획, p.19.

### 1) 지역별 관광 추세

범세계적으로 장거리 국외여행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5.37% 증가, 동기간 역내관광은 연평균 3.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역내관광은 대역외 관광의 비율이 1995년도 82:18에서 2020년도까지 76:24의 비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표 3〉 지역별 세계 인바운드 관광객 전망 (단위: 백만명, %)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10	2020
아프리카	9.7( 3.0)	15.1( 3.3)	20.4( 3.6)	27.4( 4.1)	47.0( 4.7)	77.3( 5.0)
미주	64.3(19.7)	93.6(20.4)	110.5(19.5)	130.2(19.5)	190.4(18.9)	282.3(18.0)
동아시아 태평양	31.1( 9.5)	54.6(11.9)	81.4(14.4)	92.9( 13.9)	195.3(19.4)	397.2(25.4)
유럽	211.6(64.8)	282.9(61.7)	335.6(59.3)	393.4(58.9)	527.3(52.4)	717.0(45.9)
중동	7.5( 2.3)	9.0( 2.0)	13.5( 2.4)	18.3( 2.7)	35.9( 3.6)	68.5( 1.2)
남아시아	2.5( 0.8)	3.2( 0.7)	4.2( 0.7)	5.5( 0.8)	10.6( 1.0)	18.8( 1.2)
누계	326.7(100)	458.2(100)	565.5(100)	667.7(100)	1,006.4(100)	1,561.1(100)
역내지역	265.9(81.4)	378.2(82.5)	463.3(81.9)	544.1(81.5)	790.9(78.6)	1,183.3(75.8)
장거리 지역	60.8(18.6)	80.0(17.5)	102.2(18.1)	123.7(18.5)	215.5(21.4)	377.9(24.2)

\*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0), 21세기 관광대국실현을 위한 전략경영기획, p.21.

주: ( )은 점유율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광 점유율은 1995년도 14.4%에서 2000년에 13.9%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19.4%로 다시 늘어나서 미국을 따라 잡게 되고, 2020년에는 2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에 이르면 전 세계 해외여행자 4명중 1명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여 이 지역의 국제관광객수가 4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2) 아태지역 관광추세

동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은 지속적인 관광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거나 신흥 관광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2020년에는 동 지역의 10대 관광국에 총 3억 4천 4백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며, 이들 국가들이 동아시아·태평양 인바운드 관광의 8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장거리 휴가여행자 및 상용관광객의 방문 증가와 막대한 중국계 교포 등

을 기반으로 동 지역 최대의 인바운드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은 연평균 12.3%(세계평균의 약 3배) 성장과 2020년도에 약 1억명이 해외로 여행함으로써 세계 4대 관광송출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여행자수가 연평균 6.3% 증가하여 2020년에는 총 2천 2백만명의 해외여행자를 송출할 전망이다. (표 4)

〈표 4〉 동아시아 태평양의 10대 관광국

국 가	2020년 외래관광객수(백만명)	연평균 성장(1995~2020)
중 국	130.0	7.77
홍콩(중국)	56.6	7.09
태 국	36.9	6.91
인도네시아	27.4	7.66
말레이시아	25.0	4.96
호 주	17.6	6.40
싱가포르	15.4	3.55
베트남	13.5	9.65
필리핀	11.3	7.72
한 국	10.3	4.11

\*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0), 21세기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전략경영기획, p.23.

### 3) 세계 컨벤션 수요전망

UIA의 1982년부터 199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컨벤션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05년에는 최소 9,647건에서 최대 15,064건의 컨벤션이 개최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혼란에 따른 세계경기의 위축은 상당기간 컨벤션 시장에서도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세계 컨벤션 수요는 최소수준을 기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수급분석에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컨벤션은 속성상 컨벤션 시설, 객실들의 물리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컨벤션 개최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 여하에 따라 개최건수가 달라질 수 있다. (표 5)

〈표 5〉 국가별 컨벤션 수요 전망

구 분	한 국	호 주	일 본	싱가폴	중 국	전세계
개최예정 건수	50	215	152	50	38	3,401
전세계 대비	1.5	6.3	4.5	1.5	1.1	100.0

\*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관광정책 제4호, p.11.

#### 4) 국내 컨벤션 수요전망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한 컨벤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획 목표 년도까지 국내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기타 행사 등 컨벤션 관련 총수요에 대한 예측 결과, 계획 목표년도인 2010년은 최소 466건에서 최대 1,350건의 컨벤션이 개최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국내 컨벤션 관련 수요 예측

(단위 : 건수)

분석방법		1996	1998	2000	2006	2010
브라운 지수평활법	최소	363	419	474	698	753
	최대	370	450	545	1,073	1,242
추세분석법	최소	312	334	356	444	466
	최대	371	456	560	1,156	1,350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관광정책 제4호, p.12.

## 2. 컨벤션 시설 현황 분석

### 1) 컨벤션 시설현황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적인 컨벤션 센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국내외 컨벤션의 회의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주로 특급호텔의 회의장이나 연회장 또는 대학기업체의 회의장 등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그 밖의 행사는 전시장, 공연장, 체육시설, 옥외광장 등에서 각각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국내전시장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전시장은 서울의 KOEX, 서울 무역전시장, 거평프레야와 부산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전의 대전무역전시장, 대구의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전시장, 그리고 창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전시장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종합전시장이 개장되어 있다.

컨벤션 개최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 개최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 추세에 있어서는 지방 점유율이 상승하고 서울의 개최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대전, 경상북도, 제주도의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지방 도시의 컨벤션 유치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월별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9, 11월이 전체 360건 중 175건으로서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계절적 편중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로서는 컨벤션 유치를 통한 관광비수기 타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컨벤션 전담기관은 한국관광공사 국제 협력처에 속한 컨벤션 부서가 사업활동을



돕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 관광공사 내 1개 부서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와의 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컨벤션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주도의 기구설치가 요망되며 관련업체와의 공동협조 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3. 컨벤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10년 간 전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추세를 살펴보면 1988년 8000건을 돌파한 이후 세계적인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몇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의 2000년 세계국제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총 9,433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전년에 비해 0.34%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아시아는 1,234건(전체 비중 13.1%)으로 전년에 비해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에 전년(세계25위, 아시아4위)보다 5건이 증가한 117건으로 세계 24위, 아시아 4위를 기록하였으며 서울은 103건으로(전년 97건) 도시별 개최순위로 세계 20위(전년 24위), 아시아 3위(전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회의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ASEM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코엑스 컨벤션센터가 2000년 5월 개관하였고,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가 2001년 5월, 부산 전시 컨벤션센터가 2001년 9월, 2003년 3월에는 제주 컨벤션센터가 오픈 하였고, 서울 및 지방에 대형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개항, 고속철도 개통 등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 먼저 컨벤션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법률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있어 컨벤션 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정책내용과 지원기준 등이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다.

두 번째로 컨벤션 산업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회의전문시설의 급작스러운 공급 초과를 들 수 있다. 국제회의전문시설이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제주에 시설이 공급되는 등 갑작스러운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국제회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최근 지방 자치 단체들의 경쟁적인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추진계획을 들 수 있다. 국제회의전문시설의 경우 낮은 수익성, 투자의 대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융 및 세제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민자·

외자 유치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에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국제회의산업의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에 기초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설건립 경쟁은 198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 과잉의 선례가 보여주듯이 장래 시설의 유휴화 문제로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컨벤션 산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국제회의의 관련학과가 개설·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아 외국에서와 같이 컨벤션 전문 자격증을 갖고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국제회의산업이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제회의 전문시설의 건립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지원 등을 감안할 때 컨벤션 산업 전문인력의 배출이 시급하며,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회의의 유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컨벤션 산업을 말할 수 없으며, 다양한 성격의 국제회의가 국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촉진제도와 국내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국제회의 유치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의 컨벤션뷰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 내에 컨벤션 전담 부서인 컨벤션뷰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회의 유치단계에서의 지원책이 극히 미흡하고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계상품과 이벤트, 특별숙박요금의 적용 등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민간기관에서의 국제회의 유치활동이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IV. 컨벤션 산업의 육성전략

##### 1. 컨벤션 산업의 육성방향

컨벤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의 확충(하드웨어),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맨파워), 컨벤션운영능력의 향상(소프트웨어), 정부의 지원정책(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한다.

관광산업의 특징이 민간주도 산업이듯이 컨벤션산업도 민간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컨벤션산업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의 구축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낮은 수익성 등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구축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컨벤션산업은 이제 초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관련업계의 영세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생겼다.

이리하여 2001년 8월 컨벤션 관련 공공기관, 컨벤션 전문 시설, 항공사, 컨벤션 관련 업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인 '한국 컨벤션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에 공동 협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벤션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수급전망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컨벤션 전문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규모 국제회의 전문시설은 국제회의 개최능력이 있고 인근 지역에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갖춘 도시를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컨벤션 도시마다 국제회의의 성격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컨벤션 산업 육성의 추진과제

컨벤션 산업의 육성은 하드웨어인 컨벤션 시설의 건립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컨벤션 산업은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며,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도 전문인력의 자질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따라서 컨벤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자격의 “컨벤션 기획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회의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 컨벤션 산업 관련기관의 종사자교육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이나 관광공사 등에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외 국제회의 전문기관과 공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컨벤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컨벤션 산업은 그 성격상 민간주도의 산업이되,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컨벤션 뷰로의 설립

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내에 국제회의의 유치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인 컨벤션 뷰로가 있으나, 컨벤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 역할이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 개관에 이어 부산, 대구, 제주지역에도 컨벤션센터가 개관된 점을 감안할 때 가칭 “한국 컨벤션 뷰로”를 설립하여 컨벤션 산업 육성의 전담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컨벤션 전담 기관은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대행하고, 국제회의 유치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회의의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종사자 교육훈련, 국제회의 관련 다양한 연계상품개발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회의의 전문시설이 건립되는 지방도시별로 국제회의 유치증대와 수용태세 개선업무를 주도해 나갈 전담조직으로 컨벤션 사무국(convention bureau)의 설치가 요망된다. 지역단위 컨벤션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업무 담당 부서와 지방상공회의소, 지역소재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체, 관광숙박업체, 여행사 등 컨벤션 관련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컨벤션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전략을 추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규모의 컨벤션 전문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 부산, 제주, 수원, 인천, 대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이나 자체 재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시설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벤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컨벤션 전문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계획적인 시설 건립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 컨벤션 시설의 건립방식에서도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장기저리융자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체계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컨벤션 산업은 국제회의가 지속적으로 유치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회의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컨벤션 뷰로 등이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컨벤션 전문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컨벤션 산업 시장 및 정보를 수집하고 중장기 국제회의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상품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캠페인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회의의 전문시설을 갖춘 지방도시에서도 해당도시가 국제회의의 개최지로 선호 받을 수 있도록 회의 참가자 편의제공, 환경개선, 차별적인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과 함께 해당지역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제회의전문시설이 건립되는 도시의 수용태세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체계, 교통·숙박시설·음식·쇼핑·관광 등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을 갖춘 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3. 향후 육성 추진계획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 설치, 체계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홍보활동 전개, 지역특성을 감안한 전문 컨벤션 시설 확충,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통한 국제회의의 수용태세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국제회의도시 지정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 등을 보완하여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서귀포, 수원, 대전 등 각 지방도시의 전문 컨벤션 시설 건립에 따라 지방도시별 컨벤션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컨벤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컨벤션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 '컨벤션 전담기구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2000년 9월에 완료하여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관광 컨벤션 뷰로가 2000년 말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컨벤션 뷰로가 계속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국의 전문 컨벤션 시설 건립과 지방 컨벤션 뷰로 설치에 따라 국내 유일의 컨벤션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관광공사 컨벤션 뷰로는 '한국 컨벤션 협의회'를 결성하여, 지방 컨벤션 뷰로, 국제회의관련업체, 전문교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지로 부각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V. 결 론

세계 각국들은 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자국의 부국강병을 꾀할 수 있는 전략을 도모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실익을 위한 수단 이 바로 관광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의 개최를 위해 컨벤션 산업을 중요첨 단 사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역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 교역, 정보, 통신, 물류, 기술개발, 관광 등 핵심분야에서 주변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컨벤션의 참가자들은 그 나라의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 수준은 일반 관광객들보다 2.2배나 지출이 높은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동시에 항공업, 여행업, 호텔업 및 기타 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정치적으로는 국가적 지위 향상 및 국가홍보의 효과, 경제적으로는 고용기회의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민의 국제친선 도모 및 문화의 공간 형성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컨벤션 산업은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 틀림없다.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순위가 높은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육성 및 자격증 제도의 도입.

둘째, 복합 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선별적 추진.

셋째, 연구활동의 강화.

넷째, 전담조직의 설치.

다섯째, 컨벤션 유치 및 홍보활동.

여섯째, 관련법제도의 개선.

일곱째, 컨벤션산업의 통합 네트워킹 구축.

근래의 우리나라 컨벤션 유치 성장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치건수는 증가했으나 외래객수는 감소하여 회의의 규모가 점차 소규모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최지역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개최시기 역시 관광성수기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비수기 타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는 전문국제회의시설의 부족, 컨벤션전문인력의 부족 및 부족한 정부의 지원 등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결과이나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산업 전 부분의 정비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컨벤션센터의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컨벤션 뷰로의 설립, 인프라, 전문인력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한국관광공사 (2002) : 한국관광통계, p.3.
2. 김성혁 (1997) : 일본 홍콩심가플의 컨벤션산업의 현황과 전망, 호텔관광경영연

- 구, 제12집, p.57.
3. 김대현 (1999) : 한국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4. 한국관광공사 (2000) : 국제회의 개최현황, p.4.
  5. 안경모, 김영준 (1999) : 국제회의 실무계획, 백산출판사, p.114.
  6. 조석범 (1997) : 관광호텔 국제회의 유치 증진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7. 한국관광연구원 (2001) :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안), p.7.
  8. Oppermann Martin (1996) : Convention destination images analysis of association meeting planner's perception, *Tourism Management*, Vol. 19, No. 3, pp.68~70.
  9. <http://www.knto.or.kr/korean./index.html>
  10. 김용관 (1997) : 경기도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 1권 제 1호.
  11. 김우곤 (1997) : 국내 컨벤션산업의 현황 및 경제과급효과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경영연구*, 제12집.
  12. 윤주현 (1998) : 한국축제회의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박창수 (1998) : 국제회의 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WTO(2000), *Tourism 2020 Vision*.
  15. 한국관광공사 (2000) : 21세기 관광대국을 실현을 위한 전략경영계획.
  16. 한국관광연구원 (2000) : *한국관광정책*, 제4호.

---

(접수일: 2003년 7월 24일 / 채택일: 2003년 8월 25일)